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KIA 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13일 일본 미야자키에 마련된 KIA의 스프링캠프.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김종국이 진민호의 공을 쳐내고 있다.

주전경쟁 선·후배가 없다

고참들 출신수범에 후배들 '선배 따라잡기' 전술훈련도 실전 방불 생존경쟁 본격 돌입



프로야구 2008시즌 'V10'을 향한 KIA타이거즈 선수들의 치열한 주전 경쟁이 시작됐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른 KIA는 13일 전술을 다지기 위한 첫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1월 9일 캠프에서 전지훈련을 시작, 체력훈련에 초점을 맞춰 몸만들기에 주력했던 KIA는 이날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즌 대비에 돌입했다.

훈련이 진행된 오쿠라가하마 구장은 낮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쌀쌀했지만 선수들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마운드에 선 투수의 공 하나하나에 탄성과 격려의 소리가 쏟아졌고, 코치들은 타자와 수비수들의 움직임이 흐트러지면 거침없이 지적했다.

고참 선수들도 후배들의 엉성한 플레이가 나오

면 따끔한 일침을 놓는 등 진지한 분위기에서 훈련이 진행됐다.

실전 같은 훈련을 하면서 이내 선수들의 웃음은 휴투성이가 됐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됐다. 조범현 감독은 매서운 눈매로 그라운드를 지켜보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한 세세한 메모도 잊지 않았다.

이제 시즌 개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다음달 8일부터는 시범경기가 진행된다.

KIA의 큰 틀은 조범현 감독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만 세부 밑그림은 13일부터 시작된 전술훈련을 통해 완성된다.

그동안 동일하게 체력훈련을 해왔던 선수들의 차별화된 모습이 실전훈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감독과 코치진들은 앞으로 타격, 수비, 주루플레이, 실전 투구 감각 등 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면서 베스트 9의 윤곽을 잡아갈 계획이다.

현재 KIA의 각 포지션에 정해진 주전은 없다. 기존에 활약했던 장성호, 이현곤, 최희섭 등 주전들은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아 페이스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떨어진다.

마운드에서는 제1선발로 낙점됐던 서재응이 헬스트링 부상(왼쪽 허벅지 근육 파열)으로 재활중이고 윤석민도 이날 몸이 좋지 않아 파칭을 하지 못하는 등 선발 로테이션도 리마를 제외하곤 불투명하다.

개막에 맞춰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기용하겠다는 조범현 감독의 생각에 따라 어느 선수가 개막전 로테이션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름있는 유명한 고참 선수들에게도 경쟁은 예외일 수 없다. 치열한 무한 경쟁 체제로 가면서 고참들의 모습도 예년과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종범, 김종국, 장성호 등 고참급 선수들은 출신수범에 훈련에 참여하면서, 후배들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 고참들이 나서면서 후배들도 자연히 훈련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선·후배를 넘나드는 생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야자키 KIA 전훈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 wool@kwangju.co.kr



“오른손 거포·계투 요원 없어 고민”

■ 조범현 감독 전훈 중간 평가

“최희섭, 서재응, 장성호, 이현곤 등의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 걱정이지만 팀 전체로는 계획대로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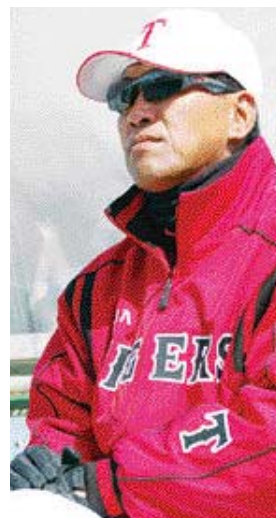
KIA 조범현 감독은 전지훈련 중간결과를 통해 이번 전지훈련이 단계별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선수들이 팀플레이를 생각하면서 호흡을 맞춰나가는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다.

그러나 시즌을 앞두고 있는 조 감독의 걱정은 그리 작아 보이지 않는다. 우타 거포와 중간투수의 부재가 바로 조 감독을 짓누르는 고민거리다.

조 감독은 “최희섭, 장성호로 이어지는 좌타자 라인에 우타자가 들어간 클린업트리오를 구성하는 게 최상이지만 아직 마땅한 선수가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중간 계투 진에서 두각을 내



고 있다”고 밝혔다.

타내는 선수가 없어 아쉽다”며 “젊은 투수들이 많아 기복이 심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용병 리마와 발데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조 감독은 “리마는 투수들 중 가장 페이스가 좋고 발데스는 빠른 발과 주루 센스로 테이블 세터나 6번 정도에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재응 근육 파열 이어 박진만 어깨 염증

올림픽야구팀 '비상'

내달 7일부터 대륙별 플레이오프

올림픽 본선 티켓에 도전하는 대표팀이 20일 본격 출발 전부터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뼈저리게 고되고 있다.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대표팀이 선수들의 연쇄 부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프로야구에서 '컨트리올 아티스트'로 이름을 날렸던 우완 투수 서재응(KIA)이 지난 6일 스프링캠프에서 러닝 중 왼쪽 허벅지 근육 파열로 훈련을 접은 데 이어 '명품 수비수' 박진만(삼성)도 어깨 염증으로 송구 훈련을 현재 쉬고 있다.

서재응은 대표팀 출전은 고사하고 정규 시즌 개막 전 등판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끝 전지 훈련 때 어깨가 아파 4일 대전 SMK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했던 박진만은 어깨 염증으로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일본 오키나와현 온나에서 전훈 중인 박진만은 현재 가벼운 테이핑만 하는 처지다.

둘 모두 이번 대륙별 플레이오프에서 선발 투수와 주전 유격수로 큰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선수들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7팀과 풀리그를 벌이는 이번 대회를 위해 대표팀은 투수 15명을 후보로 뽑았다.

그 중 선발 투수는 8명이었는데 서재응의 이탈로 7명으로 줄었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이 정규 시즌 전 열리는 대회라 선발 투수라도 5회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보지 구분은 큰 의미가 없지만 투수진 중 국제 경합이 가장 많은 서재응이 빠진다는 점에서 마운드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터줏대감 박진만의 부상으로 예사롭지 않다. 대표팀 합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더 큰 부상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탈 가능성이 높은 편.

메이저리거도 올고 갈 몰살 틈 없는 수비로 대표팀의 든든한 방패 구실을 했던 박진만이 빠지면 내야진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야전 사령관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책 하나에 승패가 갈리는 단판 승부기에 수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대체요원으로는 빨랫줄 송구가 일품인 손시헌(상무)과 날쌔돌이 정근우(SK)가 있는데 박진만의 공백을 메워줄 지는 뚜렷한 열외야 알 수 없다. 미국 프로야구 시절 단한 뇌진탕 후유증으로 스프링캠프 중 두통을 호소한 최희섭(KIA)은 일단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연필뉴스

“무리한 운동보다 완벽한 치료에 전념”

고관절 부상 '피겨여왕' 김연아 회견



세계선수권대회마저 출전이 불투명하지 않겠느냐는 시선에 대해선 “빨리 증상을 파악하고 치료를 계속할 게 될 만큼 충분히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런 고관절 부상으로 위기를 맞은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내달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운동보다 완벽한 치료를 선택했다.

김연아는 13일 동대문구 답십리5동 하늘스포츠의학클리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에서 통증을 느낀 뒤 정확한 치료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한국에서 원인을 알고 제대로 치료하게 돼 다행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운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부상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렇지만 몸이 중요하고, 건강해야 운동도 잘한다”며 “대회만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선수생활을 고려할 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관절 통증으로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에 불참하게 됐고, 3월

김연아는 “매년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질문에 “운동을 하다 보면 피해질 수 없는 게 부상이다”이라며 “이번에는 그동안 부상 경험이 많아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편하게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음 1~2주 운동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과격한 동작을 자제하고 있다”며 “당분간 스케이팅을 벗고 병원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택 1회전 탈락

ATP 투어 '오픈13'



박태환 4년 연속 MVP

대한수영연맹 선정

이형택(세계랭킹 46위·삼성증권)이 총상금 77만 7천달러가 걸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오픈13' 단식 1회전에서 탈락했다.

이형택은 13일 프랑스 마르세유 팔라드 스포츠 테니스 센터에서 끝난 1회전에서 강호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15위·스페인)에게 0-2(4-6 1-6)로 졌다.

11일 끝난 데이비스컵에서 오른쪽 발목에 생긴 물집으로 고전했던 이형택은 컨디션을 회복하려면 1~2주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 번째 투어 대회에 출전했던 이형택은 지난달 하이네켄오픈에서만 2회전에 올랐을 뿐 두 개 대회에서는 1회전 관문을 넘지 못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이형택은 다음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총상금 43만6천달러 짜리 SAP 오픈에서 2년 연속 8강 진출에 도전한다.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 입학예정·사진)이 4년 연속으로 대한수영연맹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돼 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상을 받았다.

대한수영연맹은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우승하고 올해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이 유력한 박태환을 2007년 남자 최우수 선수로 뽑았다”고 밝혔다.

2004년 최우수선수로 뽑힌 이후 매년 이 상을 받았던 박태환은 이로써 4년 연속으로 한국 수영 최고 선수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여자 최우수선수상은 작년 하계유니버시아드 평영 100m와 200m에서 2관왕에 오른 데다 거침없이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올림픽 메달권에 들어선 정슬기(20·연세대)가 받았다.

각 종목 우수선수로는 경영 최혜라(서울체고), 다 이병 한승훈(계주대), 수구 이민수(경남체육회),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이우정(연세대)가 각각 뽑혔다.

골프 링크 회원권거래 전문기관

룩펠리 회원권

골프 링크 회원권	골프 링크 회원권
관 주 3,500	관 주 1,700
남관 주 4,400	남관 주 1,900
클럽900 6,400	클럽900 2,100

성원 문의 (062) 351-0095